

# 광주·전남 결식아동 3만6천555명 방학·휴일엔 굶는다

### 방학중 급식 지원, 광주 30%, 전남 43% 그쳐

### '부자 동네' 서구 2% 불과... 구례는 95% 지원

광주지역 결식아동 10명 중 7명은 방학이나 휴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에는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 부자 동네로 불리는 광주 서구는 더 심각해 10명 중 9명은 굶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급식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무료 급식하는 광주·전남지역 결식아동 5만7천593명 가운데 2만1천388명만이 방학과 휴일에도 급식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3만6천555명은 급식 지원이 안돼 굶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결식아동 2만8천912명 중 방학동안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학생은 8천803명(30.4%)에 불과하고, 나머지 2만109명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4.6%로 광주지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광주 서구의 경우 결식아동 4천464명 가운데 고작 80명(2%)만을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인색했다.

반면 동구는 결식아동 2천648명 중 절반이 넘는 1천463명에게 방학 중에도 급

식을 지원했다. 남구는 23%(6천78명 중 1천371명), 북구 36%(9천210명 중 3천303명), 광산구 40%(6천512명 중 2천586명)였다.

전남지역은 결식아동 2만8천681명 중 1만2천235명(42.6%)에게 방학 중에도 무료 급식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4천476명 중 980명·22%)와 순천시(3천521명 중 840명·24%), 함평군(698명 중 176명·25%), 무안군(975명 중 277명·28%) 등이 30%에도 미치지 않아 굶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인색했다.

반면 구례군(500명 중 477명·95%), 영암군(811명 중 658명·81%), 장흥군(754명 중 600명·80%) 등은 80% 이상 아이들에게 방학 중에도 무료 급식을 지원해 대조를 보였다.

광정숙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는 일에 더 인색해 안타깝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들의 급식 지원

■ 광주·전남 기초단체 방학중 급식 지원

기초단체	무료급식 학생수	방학중 급식 학생수	방학중 급식 못하는 학생수	방학중 급식 비율
동구	2,648	1,463	1,185	55%
서구	4,464	80	4,384	2%
광주 남구	6,078	1,371	4,707	23%
북구	9,210	3,303	5,907	36%
광산구	6,512	2,586	3,926	40%
강진군	641	292	349	46%
고흥군	990	315	675	32%
곡성군	581	294	287	51%
광양시	1,362	766	596	56%
구례군	500	477	23	95%
나주시	2,001	667	1,334	33%
담양군	689	528	161	77%
목포시	4,476	980	3,496	22%
무안군	975	277	698	28%
보성군	976	402	574	41%
순천시	3,521	840	2,681	24%
신안군	601	448	153	75%
여수시	4,201	1,881	2,320	45%
영광군	968	374	594	39%
영암군	811	658	153	81%
완도군	737	343	394	47%
장성군	886	690	196	78%
장흥군	754	600	154	80%
진도군	673	226	447	34%
함평군	698	176	522	25%
해남군	913	453	460	50%
화순군	1,368	548	820	40%

예산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경제성장 주도” vs “민주주의 후퇴”

### 박정희 前대통령 서거 30주년 정치권 재평가 활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6일로 30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 정변 이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며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도약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눈부신 변화상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빈국의 성장모델이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작업은 미진하기만 하다. 이념과 지역, 세대에 따라 평가 기준부터 제각각이다.

우선,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경제 치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산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의원은 "공은 분명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386의 만행 격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가 아니라도 나라가 잘됐을 것이라는 논리와 그가 독재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논리가 있는데, 후자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전에 "인정할 건 하고 비판할 건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박지원 의원이 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뤄내 민족을 오랜 가난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야말로 불멸의 공적이다"(안상수), "국가의 장래를 보는 혜안을 가졌다"(김효재)는 등의 호평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권영길 의원은 "박정희 경제의 바닥에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산업화에 대한 평가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최대 과오로 꼽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후퇴했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맨해튼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뉴욕서 북미 접촉... 양자대화 물꼬 트나

방미 중인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와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리 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도착해 성 김 특사와 회동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문제와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북미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리근 국장은 약 1시간에 걸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성 김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말을 아꼈다. 미국측과의 추가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또 볼 수도"라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배석했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여기서 오늘 더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샌디에이고에 가서 보자"고 말해 향후 샌디에이고 등에서 북미 간의 추가 접촉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공직사정의 부작용



홍 행 기

정치부 차장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위축됩니다."

요즘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검찰과 경찰이 '토착·공직비리 척결'을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선 이미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됐다.

지난 6월엔 검찰이 광주시를 상대로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엔 지난 3년간의 공사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두도록 전남도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전남도에선 '누구누구가 검찰이나 경찰, 총리실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퍼지고 있어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몸을 한껏 낮추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지로 흘러나온, 확인되지 않은 정보·정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하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사정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웬만한 사업들은 아예 덮어버리거나, 추진을 보류하려는 움직임마저도 보이고 있다.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관한 오해를 사기보다는, 사정의 거센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것처럼 지내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 한 직원은 "요즘 도청 청사 안팎에서 온갖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직원들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마치 모든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매도되는 상황이 몹시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직비리 사정작업이 특정인을 음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의 경우 연말·연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이 유력하거나 소위 '잘나가는' 공직자들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무슨 혐의가 있다더라'는 식으로 번지고 있는 '카더라 통신'은 공직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동료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특정인 흠집 내기는 매년 인사를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숨어서 쓰는 화살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루머들은 특히 검찰·경찰의 공직사정과 함께 퍼지고 있어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해도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에 대한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공직사정이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일부 인사들에 의해 특정인을 음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redplane@kwangju.co.kr

## 'MB 新아시아 외교' 본 궤도에

### ■ 李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

### 동반자 관계 격상... 북핵 '그랜드 바겐' 지지 이끌어 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은 '신(新)아시아 외교'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차례로 방문, 이들 3국을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전반적인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고 25일 밤 귀국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리더 역할을 통해 역내 중심국으로 올라선다는 신아시아 외교 구상의 성과 여부가 아세안과의 관계

설정에 달렸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태동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신아시아 구상이 본격적인 순항 궤도에 안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변영의 동반자인 아세안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첫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에서부터 조짐이 좋았다. 이 대통령은 응웬 민 쩌엣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계를 '동맹 관계' 바로 아래인 '전략적 협

력 동반자'로 무려 2단계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아세안의 정치적 맹주로 평가받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고 국가'로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의 첫 단추가 계획대로 꿰어진 순간이었다.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 연장, '북핵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식 지지 등의 실익이 있었다. 마지막 순방국인 태국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한·아세안 관계를 현행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합의한 점도 성과다. /연합뉴스

최석 라이프여 안녕~  
순천의 색을 바꾸다!  
신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순천 두산위브  
문의전화 725-7600